

코스피 '이전 호재'... 이제는 옛말 수급상 효과보다 실적개선에 집중

포스코DX, 주가 57%가량 떨어져
엘앤에프, 이전 상장 후 29% 하락
산업 불황·성장폭 둔화 등 영향
코스피 이전에 주가 ↑... 비정상적

코스닥 대장주들이 투자자 유입, 기업 인지도 제고 등의 효과를 예상하며 코스피로 자리를 옮겼으나 이들 기업의 주가는 기대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적을 거두고 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파라다이스, 포스코DX, 엘앤에프 등의 주가는 두 자릿수 하락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했던 카지노 기업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이전 상장 후 19%가량 급락했다.

이전 상장을 한다는 소식이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당초 1만5000원을 넘어섰으나 최근 들어 1만2000원대까지 떨어졌다.

기대했던 기관이나 외국인의 대규모 자금 유입도 주춤했다. 오히려 이 기간 동안 기관은 361억원어치 순매도했으며 외국인의 순매입은 9억5600만원어치에 그쳤다.

올해 첫 코스피로 이전했던 정보기술(IT) 서비스기업 포스코DX의 주가 역시 이전 상장 직전 7만4200원에서 57%가량 떨어졌으며, 지난 1월 말 코스피로 옮겨온 2차전지 소재기업 엘앤에프의 주가도 이전 상장 이후 29% 내렸다.

이전 상장을 앞두고 15만9400원에 거래됐던 주가는 현재 11만3500원으로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이미지.

주저앉았다.

코스닥에서 코스피 이전은 수급 개선, 투자자 저변 확대,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장에서 호재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 이는 실적을 동반한 호재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포스코DX, 엘앤에프의 경우 이차전지 산업 불황이 이어진 점이 주가에 반영됐다. 파라다이스도 성장폭이 둔화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파라다이스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2822억원에 영업이익은 25.4% 감소한 40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남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공시를 통해 2026년 연결기준 1조2554억원의 매출 목표를 내세웠지만 단기 실적 개선 포인트 부재, 중장기 투자비용 증가로 발표 이후 주가는 하락했다"며

"올해 2~3분기는 전년 실적 베이스가 높아져 추가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코스피 이전 상장보다는 기업의 실적과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들이 이전 상장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실적 개선보다는 단순히 수급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 심리 때문"이라며 "이러한 수급상의 효과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코스피로 이전한다고 해서 주가가 갑자기 높아지는 건 정상적이지 않다"며 "일시적인 수급상의 변화보다는 기업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을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 '23兆'

전년 동기 대비 84.2% 늘어

(9조5804억원)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상반기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은 23조 443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5082억원) 대비 84.2% 증가했다.

이중 공모펀드 이익배당금은 3조 4921억원으로 66.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모펀드 이익배당금은 19조 5522억원으로 87.7% 늘었다.

이익배당금을 지급한 펀드수 역시 공모펀드 1349개, 사모펀드 7792개로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각각 32%, 6.5% 증가했다.

펀드 이익배당금 지급액 중 당해 펀드에 재투자한 금액은 12조7555억원으로 이익배당금의 55.4% 수준으로 집계됐다.

공모펀드 재투자율은 90.9%(3조 1751억원), 사모펀드 재투자율은 49%

에탁원 관계자는 "사모펀드의 경우 재투자자가 쉽지 않은 부동산·특별자산형 비중이 공모펀드보다 높아 재투자율이 낮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로 설정된 펀드 최초 설정액인 신규 설정액은 31조86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4% 증가했다. 청산분배금은 18조 5404억원으로 18.5% 늘었다. 공모펀드의 신규 설정액은 2조995억원으로 21.1% 감소한 반면, 청산분배금은 1조7432억원으로 2.7% 증가했다.

사모펀드의 신규 설정액은 29조 7690억원, 청산분배금은 16조31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7%, 20.5% 늘었다.

공모펀드에선 신규 설정액과 청산분배금 모두 채권·채권혼합 유형에서 크게 늘었고, 사모펀드에선 신규 설정액은 기타 유형에서 대폭 증가했으나 청산분배금은 부동산·특별자산 유형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관희 기자

(이익배당금 지급현황*)

(단위: 억원, 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전년대비
이익배당금	공모	13,000	13,321	20,928	22,583	34,921	66.90%
	사모	111,651	114,410	104,154	121,504	195,522	87.70%
	합계	124,651	127,731	125,082	144,087	230,443	84.20%
펀드수	공모	1,107	755	1,022	906	1,349	32.00%
	사모	7,353	6,903	7,319	7,200	7,792	6.50%
	합계	8,460	7,658	8,341	8,106	9,141	9.60%

*지급일 기준. 모펀드·ETF·외화표시 수익증권 등 제외. 특정 펀드가 다회 이익배당금 지급 시 펀드수 중복 산정 (이하 동일) /한국예탁결제원

중소형증권사, 부동산PF 부담에 전망 '깜깜'

SK·디올투자·케이프투자증권 등
올 상반기 신용등급 전망 하향 조정
구조조정·경영효율화 추진하기도

올들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의 지속으로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형 증권사들이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3일 낸 '상반기 정기평가 결과'와 '하반기 산업별 전망' 보고서에서 증권 업계의 산업전망을 '비우호적', 신용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하향 조정 배경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꼽히고 있다. 국내 부동산 금융의 경우 브릿지론 뿐만 아니라 본 PF 대출도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4분기부터 건전성 지표 저하의 폭이 확대되고 있다.

중소형사의 브릿지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높음' 비중은 73%에 달해 대형사(34%)보다 2배 높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에 비해 고위험 부동산 PF 부담이 크고, 수익구조

가 제한적인 중소형 증권사는 지속적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다.

앞서 나이스신용평가·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 등 3개 신용평가사는 올 상반기 SK·디올투자·케이프투자증권 등 3개 증권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1분기에 13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하이투자증권은 6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각각 기록했다.

중소형사들의 실적 회복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윤재성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올해 들어 국내의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위탁매매 부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를 중심으로 실적 개선폭이 나타나고 있으나 부동산금융을 중심으로 수년간 사업을 확장한 중소형사의 경우 부동산PF 환경 저하로 인해 수익창출력이 크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PF 사업성 평가 점검에 나서면서 충당금 추가 적립에 대한 압박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중소형 증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신규 PF사업성 평가 기준 도입에 따라 브릿지론과 중·후순위 본PF 중심으로 요주의, 고정이하비율 상승 전망, 업체별 추가 대손부담은 차별화될 것"이라면서 "고금리, 부동산경기 감안 시 비부동산 영업기반 중요도 상승, 포트폴리오 다각화 수준 낮은 증권사는 이익창출력 회복이 더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소형 증권사의 사업환경 악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중소형 증권사는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SK증권은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지점장, 기업금융부장, IT본부장 등 임원 16명을 해임했다. 아울러 SK증권은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지점 통폐합 등을 비롯한 경영 효율화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 업황 회복이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형사들에 비해 신규 수익 창출 요인도 적기 때문에 중소형사들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원관희 기자



키움증권-케이뱅크, 신규 비즈니스 발굴 등 '맞손'

키움증권과 케이뱅크가 신규

비즈니스 발굴 및 플랫폼 사업 확대를 목표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회사는 협약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 ▲플랫폼 MAU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제공 ▲금융상품 크로스셀링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업무성 키움증권 대표이사(오른쪽)와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이 24일 오후 케이뱅크 본사에서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키움증권

KB증권, 퇴직연금 수익률 3개 부문 '1위'

DB, DC, IRP 부문서 성과

확정급여형 10.07%, 확정기여형 11.15%, 개인형퇴직연금 13.66%를 달성했다.

KB증권은 2분기 기준 퇴직연금 원리금보장 상품 중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 등 3개 부문에서 증권업계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고 25일 밝혔다.

확정급여형에서 4.70%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확정기여형 수익률은 5.25%, 개인형퇴직연금은 5.88%를 나타냈다. 이는 은행, 보험(손해, 생명) 업권별 원리금보장 상품 평균 수익률보다 높은 수치다.

퇴직연금 비원리금 상품 수익률도

김상혁 KB증권 연금사업본부장은 "KB증권은 지역본부에는 영업 담당(RM), 지점에는 연금마스터를 두어 각종 연금 관련 세미나 개최와 추천 상품 공유 등 본사와 지점이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면서 "연금 자산은 장기 투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고금리 상품뿐만 아니라 수익률 제고를 위한 최적의 상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